

안녕하세요, 저는 게임을 좋아하는 게임 개발자 이경로 라고 합니다.

저는 어릴적부터 취미가 게임이었습니다. 중학생 즈음 게임을 하다가 ‘이 재미있는 게임을 내가 직접 만들면 어떨까?’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RPG Maker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중~고등학생 시절에 게임 제작을 해보았고, 진로를 게임 개발자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.

작년에는 SuperTuxKart라는 오픈소스 게임의 오류 제보 및 수정, 번역 작업을 경험해 보았습니다. 4명의 팀으로 구성되었고, 저는 번역을 전담하였으며 팀장을 맡아 매주 게임 내 오류를 찾는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. 결과적으로 제보 6건, 커밋 완료 3건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.

현재는 졸업 프로젝트로 Dapp를 기반으로 한 슈팅 게임을 제작 중입니다. 요즘 떠오르고 있는 NFT를 게임과 접목시켜 자유로운 거래와 수익 창출이 가능한 게임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.

당사에서 서비스중인 로스트아크를 현재 플레이 중입니다. 게임을 꽤 하드하게 플레이하는 중이고, 그만큼 게임에 대한 이해도와 유저들의 입장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당사에 입사하게 된다면 직업별 고충 및 유저들이 선호하는 콘텐츠를 파악하여 게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.